

이시연·서지승 부부 득남 "건강하게만 자라다오"

등록 2026.05.27 00:00:00



[서울=뉴시스] 손정빈 기자 = 배우 이시연(44)·서지승(38) 부부가 부모가 됐다.

이시연은 26일 소셜미디어에 "그토록 바라던 아들 태건이가 지구별에 도착했다. 태어난 김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"라고 말했다. 이시연은 아이 발 사진을 함께 올렸다. 이시연 아들은 지난 22일 태어났다.

이시연과 서지승은 2021년 결혼했다.

1982년생인 이시연은 2001년 영화 '신라의 달밤'으로 데뷔했다. 이후 예능 '나 혼자 산다' 등에 나오며 이름을 알렸다. 최근 '플레이어2:꾼들의 전쟁'(2024) 등에 나왔다.

1988년생인 서지승은 2005년 드라마 '반올림'으로 연예계 발을 디뎠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b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